



오인회 소식

2019년 2월 (제89호)

권두언 (卷頭言)

허용하면 신비롭다

즐거움을 허용하면 즐거움보다 즐거워하는 내가 신비롭다
불행함을 허용하면 불행보다 불행해 하는 내가 신비롭다

힘듦을 허용하면 힘듦 보다 힘들어하는 내가 신비롭다
우울함을 허용하면 괴로움보다 괴로워하는 내가 신비롭다

그래서 여름과 겨울의 계절은
그만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닐까?

- 超顯 -

*** 홀로스 공동체 후원 현황 ***

홀로스 공동체의 다양한 활동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홀로스 운영 후원 내역

○ 일반후원

1월 25일 장경옥 3만원 / 2월 11일 선호 1만원 / 2월 11일 권오인 10만원 / 2월 11일 류창형 3만원 / 2월 20일 여행 1만원 /

● 공동체학교 후원 내역

○ 일반후원 (기보 100만원/ 연주 60만원, 바람 300만원, 지원 100만원, 자명 230만원)

○ 월정기후원 (매월 20만원 2년간/ 별칭 뒤에 숫자는 월 후원 횟수 입니다)

- 일반 (익명A24, 익명B24, 능주24, 슬내음19, 무유22, 고을26, 서원19, 여몽24, 원남26, 기보24, 썬이20, 허유24, 거위24)
- 기타 (가온26, 구당26, 자현24)

<공동체학교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135-404042 이원규 / 문의 : 02-747-2261 (신현이)

● 번뇌즉보리 총서 후원 안내 (대승 上, 中권 출판 완료, 下 출판비 : 450만원)

<번뇌즉보리 총서 후원계좌> 농협 351-0680-1315-13 이원규 / 문의 : 02-747-2261 (신현이)



관성을 넘어가다

이류 인터뷰 2

이류님은 10대부터 삶과 죽음과 마음의 고통에 대해 힘들어했고 대학에 들어가면서 노장, 불경, 성경 그 외 심리학과 철학, 현대물리학에 관심을 가지고 접하여 왔습니다. 약대에 다니면서 동양철학을 공부하며 태극권을 시작해 국제태극권 권사(국제사범) 자격을 취득하고 여러 의식개발프로그램과 위빠사나, 사마타 등의 수행과 심신 상관의학, 약선, 음식치료, 분자교정의학 등을 공부하며 대체의학 전문 약국을 25년간 운영하였습니다. ‘아토피, 건선, 백반증’에 관한 책을 저술했으며 백반증과 아토피 치유 식품을 개발하였습니다.

한 선원에 10여년간 다니는 중에 본성을 체험했으나 허무감과 무료함의 관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다 2018년 5월에 약국을 폐업하고 ‘무아’와 ‘이것’이 분명해지고 관성을 해결하고자 백일학교에 들어갔고 깨어있기와 자연에 맡기기, 통찰력 게임, 관성다루기 등을 통하여 이 모든 문제가 해소되었습니다. 현재 깨어있기 마스터 과정을 시작하며 의식과 관성의 문제를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다룰 수 있음을 확신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호에 이어서)

허유: ‘내가 체험했다’라는 아상을 내가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백일학교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알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류: 월인 선생님께서, ‘이 자리를 체험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이냐’는 말씀부터, ‘이것과 느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백일학교 입학 10일 뒤 깨어있기 심화 과정을 처음 들었는데, 그때 동일시라는 것이 어떤 현상을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해서, 동일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알게 되면서 새롭게 ‘나’에 대해 보기 시작했고, 또 그때부터 일상에서 선생님께서 계속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허: 어떤 질문을 하셨나요?

이: ‘이것’이 분명하냐. 그것을 자주 물으셨어요.

하: '이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이: 깨달음의 본성, 의식이 본성이 분명하다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그것과 느낌, 특히 투명한 주의와 차이가 무엇이라는 질문을 자주 하셨어요. 처음에 그런 질문을 하셨을 때는 왜 그러시는지 몰랐어요. '내가 체험했다고 하니까 그냥 물어보시나 보다' 그렇게만 알았는데, 느낌, 특히 투명한 주의가 이것과 비슷한 상태인데 그것과 차이를 말해 보라는 말씀을 통해 '이것'을 명확히 잡았는지, 자꾸 흔들어보는 작업임을 알게 되었지요. 그런 작업을 통해 좀더 분명해져 가게 되었어요.

하: 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하셨나요?

이: 처음에는 그 어떤 느낌들도 투명한 주의 이후에 일어나고, 이것은 그 투명함 이전에 있기 때문에 느낌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계속 끊임없이 '내가 체험했다'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생각으로 빠질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내가 분명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했지요.

하: 백일학교 들어오신 이후에도 그러셨나요?

이: 선생님이 질문을 하실 때마다, 저도 모르게 '내가 체험했다'는 것을 아래 깔고 말을 이어갔기 때문에 자꾸 이분화가 되잖아요. '내가 있고 '체험'이 있어 '내가 체험했다'가 되니까요. 어느 날은 또 '이것'과 '느낌'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모든 것이 '이것' 위에서 일어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 드리니까 선생님께서 '오매일여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어요. 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똑같은 상태를 말하는 건데, 지금 눈앞에 '이것'이 또렷하게 밝다면 잘 때는 어떠냐고 물으셨어요. 그 질문을 듣고, 전에는 이것이 분명하다고 여겨졌는데 이날은 탁 막히는 거예요. 분명했는데 왜 이러지? 하면서 다시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내가 체험했다' 속에 있으면 점차 분명해지지 않게 되고 다시 떨어지고 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로 '나'라는 것이 더욱 더 불편해졌어요.

하: 그래서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셨어요?

이: 깨어있기 심화과정에서 주의 연습을 하고 여러 가지 연습을 했지요. 사실 감지라는 용어를 백일학교와 월인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처음 접했어요. 그 전에는 감지라는 용어를 들어보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는 경험적으로는 되어 있었어요. 저는 백일학교에 처음 오자마자 심화과정을 먼저 하게 되었는데, 감지에 대한 느낌이 있었기에 과정에 들어가도록 허락받았어요. 이 과정에서 나라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씀드리면서도 어떤 체험들이 있었는데, 그 체험이라는 것은 '허공이 말을 하고 허공이 생각하고 허공이 걷고 있고 있다'는 것이었고, 그러나 여전히 '뭔가가 있다는 게 참 걸림이 된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런 체험과 또 그 다음 달 깨어있기 기초 과정에 참여하면서는 주의 연습을 통해 어떤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몸을 이루는 물질이 분자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다시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소립자로 이루어져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99.9%가 모두 허공으로 거의 이루어졌다는 거죠.

깨어있기 기초과정을 하면서 선생님의 나레이션을 통해 이 과정을 해나가는데, 어느 순간 몸이 다 사라지고 '나'도 사라졌는데, 연습과정이 끝나고도 그 상태가 유지되었어요. 그런데 연습 경험요약을 하는 시간에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느낌이 일어나는데 나는 없다'라고 하게 되었어요. 그때 말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체험을 한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 달 다시 깨어있기 심화 때 주의 연습을 하면서, '아 모든 것이 꿈이구나. 나와 이 세계가 허상이구나, 전체가 꿈이구나!'를 깨우쳤어요. 그때 선생님께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생각나네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이 서서히 진행었죠.

하: '내가 체험했다'고 하는 불편한 느낌은 어떠셨어요?

이: 금강경에, 모든 것이 허상임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뭔가 통찰은 일어났는데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있는데' 하는 것이 있으니까 정말 불편했었던 거예요. '나가 없다'고 했고, 스스로도 무아의 이치를 깨우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계속 '나'가 느껴지고 있는 거지? 하고 불편했었죠. 그렇게 이전에는 공부하면서 나를 자꾸 없애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월인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알게 됐지만, '없애야 된다'는 것은 저항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저항을 하면 오히려 주의가 더 많이 가게 되어 더 실제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더 지속이 된다는 것, '나'란 없애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 '동일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여기 와서 명확하게 알게 되니까, 나라는 문제가 굉장히 가벼워지면서 해결이 됐다해야 할까요, 그렇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없애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깐 굉장히 불편했던 거죠.

허: 지금은 없애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놔버리신 건가요?

이: 그것이 저한테 정말 중요했는데요, 여기 와서 동일시란 개념을 처음 접하면서 동일시라는 것이 그 밑바닥에 동일시하지 않음이 전제가 되는 것임을 알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동일시켰으면 동일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나라는 것에 대해 되게 유연해졌습니다. 선생님께서 나란, 없애야 될 대상이 아니라 굉장히 유용하게 써야 할 도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없애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점점 나라는 것이 유연해졌다고 할까요, 그런 시간이었죠.

허: 그럼 '나'라는 것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상태가 된 건가요?

이: 네 점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깨어있기에서 몰입하는 연습을 하는 가운데 그런 체험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허: 있어도 상관없는 도구로써 생각하시니까 이제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불편한 느낌이 사라지신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처음엔 불편했는데 조금씩 유연해지고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다가 깨어있기에서 '나가 없는데 다 일어나고 있구나'를 경험하면서 '모든 것이 꿈이구나'를 경험하게 된 거죠.

허: 나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없어져야 할 아상(我相), 없어져야 될 대상으로 여기니까 불편했었는데 나에 대한 동일시가 떨어지면서 유용한 도구로써 이용하게 되신 후로는 불편한 느낌도 사라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 그것이 금방 된 것은 아니고요, 좀 유연해졌다고 봐야 될까요. '아, 나라는 것은 필요할 때 쓰는 임시적인 것인데 나라는 것이 실체가 있다고 믿으면서 살아왔구나' 그렇게 된 거죠.

허: 깨어있기에서 발견하고 경험한 것이 체험적으로 와 닿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이: 제가 9월 5일에 들어와서 9월 14일 날 깨어있기 심화를 했어요. 거기서 주의에 주의 기울이기, 동일시, 있음 이런 연습들을 하면서 '나'라는 것이 불편하지만 어떤 허공, 모든 존재의 본질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체득이 되어가는 경험을 했고 그 다음 달 기초 때에는 처음부터 감지 연습을 하고 주의 연습을 하는 가운데 새로운 경험을 또 했어요. 예를 들어 전체주의를 하는데 눈은 보이는 통로일 뿐이고 보는 주체가 따로 있는데, 그것이 전체로 확대되면서 허공이 말을 하고 허공이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 심화 때는 뭐가 나인 듯 하고 아닌 듯 한 이것이 되게 불편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보는 것'이 눈이 보는 게 아니구나, 보는 게 따로 있다는 통찰과 함께 그것이 전체로 확대되면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약해졌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뭐가 있다라고 느껴져 그것이 마음에 되게 걸린다 여겼죠.

허: 그 다음엔 어떻게 되셨나요?

이: 그때 선생님께 말씀드린 것이, 제가 계속 마음에 품고 있던 '우물이 당나귀를 본다'라는 화두였어요. 선생님께 허공이 말을 하고, 허공이 듣고, 허공이 보고 하는데 '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 느낌이 자꾸 걸리고, 당나귀가 우물을 본다가 아니라 '우물이 당나귀를 본다'라는 이 화두가 아직 시원하게 풀리지 않고 불편하네요. 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깨어있기 심화과정때 거울보기를 하면서 이 화두도 해결되었지만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10월 달에 깨어있기 기초를 하면서 몸이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는 경험을 했는데 그때 선생님께 말씀드렸죠. '선생님, 나라는 것이 사라졌는데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다 하네요.'

허: '내가 사라졌으면 불편함도 없어졌겠네요?'

이: 그때 선생님 말씀이 '나라는 것이 늘 실제한다고, 늘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착각이고, 거기에 늘 믿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진 것이지, 사실은 있다가 또 사라졌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과연 그런가라고 의문하다가 기초 때 체험하고 나서야 '아, 정말 그렇네.' 라고 했는데 그것이 또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또 나라는 것과 동일시가 좀 되었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일상에서 계속 '나라는 것이 느껴집니까?'라고 자주 물으셨거든요. '네, 잘 느껴집니다.' 그랬는데, '그럼 나라라는 것이 느껴지듯 내가 느끼는 느낌들도 느껴지죠?', '네, 나라라는 것이 느껴지고 보고, 듣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의 화두로 잡았어요. 아,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모두 내 느낌의 세계구나. 나도 그렇고 보는 것도 그렇고 내가 느끼는 세계구나. 그것을 늘 마음에 품었어요. 그렇게 일상을 생활하면서 관성도 많이 다뤄지기 시작했고, 11월 달 심화를 다시 왔을 때 주의연습을 다시 하는데 '나는 없는데 모든 것이 다 일어나고 있구나'가 명확해지면서, '전체가 본성이 꾸는 꿈이네요. 나도 꿈이고 세계가 다 꿈이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대승기신론(72) - 2013년 8월 27일 강의 월인(越因)

지난시간까지 진여(眞如)의 체(體)와 상(相)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체(體)의 핵심은, 일체의 범부, 성문, 연각, 보살, 부처 모두가 그 본체에 있어서는 다름과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잡아서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변함이 있지만, 체(體)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결코 알 수 없고, 건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체(體)에 대해 아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변하는 것을 변하는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현상이라면, 그 현상이 현상임을 아는 것이 체(體)를 파악하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본체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변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그러면서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본체가 아니라고 부정하면 됩니다. 마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모든 것,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니다'라고 부정하면 그것이 바로 체(體)의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체(體)의 자리에 있을 때만 변하는 것을 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변하는 것들 중의 하나에 동일시되어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은 결코 파악될 수 없습니다.

의타성(依他性)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뭔가 마음에 잡힌다는 것은 그것과 잡는 주체 사이에 긴장감이 발생하며 어떤 주고받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 눈에 보이는 대상과 눈 사이에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손으로 뭔가를 만질 때도 그 대상과 손 사이에 어떤 느낌이 있는데, 이런 것을 긴장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로 소리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모든 것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보고, 듣고, 감촉할 때 항상 세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주체와 대상, 그리고 그 사이의 관계인 느낌이지요. 어떤 느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대상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가 맺어져 연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연결을 통해 주체로 있으면서도 주체 자신과 대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주체'라고 여겨지는 느낌은 '대상을 통해' 생겨나는데, 그 주체감 주체감은 주체를 '느끼려는 의도'가 만들어내는 주체의 느낌으로, 예를 들어 책상위의 마우스를 볼 때는 마우스와 그것을 보는 '나'가 있지만 그 '나'를 느끼지는 못하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제 마우스를 '보는 나'를 느끼려고 하면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느끼게 되는데, 이때 느껴지는 '나'가 바로 '느껴지는 주체'인 '주체감(主體感)'이다.

또한 마음에 일어난 현상이고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체에 동일시되어 있으니까 주체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데, 사실은 대상을 통해 이미 주체는 파악되고 있는 것입니다. 파악된다는 측면에서 잡히는 것이고, 잡히므로 변하는 것이고,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처음에 '나라는 느낌'을 느껴보라고 하면, 자기가 동일시되어 있는 것은 보기 힘들기 때문에 안 느껴진다거나 모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상을 통해 이미 자기를 느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의식되지 않을 뿐입니다. 이렇게 부분적인 나, 현상으로서의 나는 잡히기 때문에 본체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지요. 마음에 의해 잡히잖아요.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잡힙니다. 누가 잡나요? 주체가 잡습니다. 주체가 잡는 역할을 하면서 자기 자신도 잡는 거예요.

상(相)은 체(體)가 어떤 모습을 띠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진여의 상(相)은 모든 상(相)들을 다 띠게 되는데, 대지혜광명(大智慧光明)이라는 상(相)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지혜광명은 망념(妄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망심(妄心)은 나와 대상을 나누는 최초의 분열이고, 망념(妄念)은 대상들을 아주 다양하게 나누는 분별(分別)입니다. 망령된 염(念)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그 분별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이지 실제의 분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망념(妄念)이 마음에 지어진 경계선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대지혜광명(大智慧光明)이고, 주체와 대상이라는 분열이 경계에 불과하다는 점이 비쳐지면서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대지혜의 핵심 중의 하나는 무언가를 보는 견(見)이 일어나면, 이미 다른 것은 보지 못하는 불견(不見)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컵을 볼 때는 나와 컵, 그리고 봄이 생겨나 있는 상태지요. 그러면 이미 그 안에는 ‘나는 컵이 아닌 빵을 보지 못한다.’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지혜가 아닙니다. 대지혜광명은 두루두루 모든 것을 비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전체주의와 같은 것입니다. 전체주의는 어떤 하나에 주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주의를 주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보이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느껴지고, 다 들려요. 그렇지만 어느 하나를 보고 듣는 순간 즉시 다른 것을 못 보는 상태로 바뀌어버리죠.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태양과 같이 모든 것을 두루 비칩니다.

오늘은 용(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復次眞如用者。所謂諸佛如來，本在因地，發大慈悲，修諸波羅密，攝化衆生，立大誓願，盡欲度脫等衆生界，亦不限劫數，盡於未來。以取一切衆生如己身故，而亦不取衆生相。

부처진여용자. 소위제불여래, 본재인지, 발대자비, 수제바라밀, 섭화중생, 입대서원, 진욕도탈등중생계, 역불한겁수, 진어미래. 이취일체중생여기신고, 이역불취중생상.

또한 진여의 작용이란 말하자면 모든 부처와 여래가 본래 인지(因地)에서 대자비(大慈悲)를 일으켜 여러 바라밀을 닦아서 중생을 섭화(攝化)하며, 큰 서원(誓願)을 세워 일체의 중생계를 모두 도탈(度脫)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겁(劫)의 수를 한정하지 않고 미래에까지 다하는 것이니 모든 중생을 돌보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기 때문이며, 그러면서도 중생상(衆生相)을 취하지 않는다.

육바라밀(波羅密)은 불교의 수행덕목으로 보시(布施),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精進), 선정(禪定), 지혜(知慧)를 말하는데, 보살이 되기 위한 수행의 길이기도 하고, 보살이 된 사람이 나타내 보여주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보시(布施)는 기꺼이 베푸는 것이고, 지계(持戒)는 계율을 지키는 것, 인욕(忍辱)은 박해를 참고 용서하는 것, 정진(精進)은 바르게 나아가는 것, 선정(禪定)은 텅 빈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 지혜(知慧)는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지혜를 일으켜 사용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지혜로워지려는 노력이 바로 보살로 가는 길입니다. 섭화중생(攝化衆生)은 ‘중생을 가르쳐서 일깨움’을 말하고, 도탈(度脫)은 번뇌의 강을 건너 해탈함을 뜻합니다. 겁(劫)은 수많은 세월을 말하는데, 그 세월을 지나 미래에까지 중생을 돌보기를 자기 몸 같이 한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부처나 보살에게 자기라는 것이 있고 남이라는 것이 있나요? 그래서 그 뒤에 중생상(衆生相)을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덧붙여 나옵니다. 누군가가 “아, 나는 깨달았어.”라고 말한다면 그는 깨달았다는 상(相)을 가진 중생입니다. “나는 부처가 됐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부처가 되었다고 여기는 중생이예요. 이런 것이 바로 마지막으로 갖는 중생상(衆生相)인데, 진여의 용(用)에는 그런 중생상(衆生相)이 없다는 것입니다.

此以何義. 차이하의.

이것은 무슨 뜻인가?

중생이 열반의 이치를 깨닫기는 했으나, 그런 ‘깨달았다’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 것을 중생상(衆生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중생상(衆生相)을 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마음에 잡히는 모든 것을 현상으로 파악하면, ‘아, 나는 깨달았어.’라는 마음이 일어날 때 즉각 파악됩니다. 그것이 파악이 안 되면 함정에 갇히게 되고, 조만간에 또 괴로움과 흔들림이 일어나죠. 그러니 아주 잘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잘 보지 않아서 여기에 걸려들면 결국엔 곧 일반적인 마음에도 걸려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구조는 똑같기 때문이예요. ‘아, 나는 경험했어.’에는 마음의 일반적인 구조가 다 있어요. 내가 있고, 무언가가 있고, 경험했다는 마음이 있으니, 나와 대상과 그 사이의 느낌이 다 있는 것입니다. 경험이 일어난 순간에는 커다란 환희가 일어나지만, 그것을 내가 경험했다고 여기는 순간 다시 마음의 구조 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치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험이 아니라, 경험에서 일으켜진 통찰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경험을 내가 했어.’라고 하는 순간 다시 마음의 구조 속에 빠져들고 말거든요. 통찰이라는 것은 마음의 구조를 보고, 모든 것을 통합해서 그 맥을 관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는 공부는 뭔가를 알기 위해 하는 공부라 아니라, 마음의 구조를 철저히 파악하여 그 구조 속에 빠지지 않는 것, 그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조가 형성되는 순간에 내 생명의 에너지가 그 구조 내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응무소주(應無所住)인 것입니다. 생명에너지가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어 쓰는 것인데, 그것이 중생상(衆生相)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謂如實知一切衆生及與己身, 眞如平等無別異故.
위여실지일체중생급여기신, 진여평등무별이고.

말하자면 일체 중생과 자기의 몸이 진여에 있어서 평등하여 다름이 없는 것인 줄 여실히 알기 때문이다.

중생상(衆生相)을 취하지 않는 이유는, 꼭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마찬가지로 일체의 중생과 자신이 본질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아주 철저히 알고, 경험하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부가 부처가 된다고 해서 본체에 변화가 생기거나 뭔가가 늘어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헛웃음을 웃는 것입니다. ‘아! 이거였어?’, ‘내가 이것을 발견하려고 평생을 이려고 있었던 거야?’ 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작용과 상(相)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하지만, 진여에 있어서는 어떠한 다름도 없습니다. 그리고 본체를 발견한 사람은, 진정한 자신이 상(相)이나 용(用)이 아니며 그 본체에 있어서는 범부나 부처가 다르지 않음을 보니까 차별을 둘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차별이 없기도 하고요. 이것이 중생상을 취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중생심(衆生心)이 곧 부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승기신론의 첫 부분에서 나왔죠. 부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는 깨달은 중생이요, 중생은 깨닫지 못한 채 잠깐 자고 있는 부처인 것입니다. 중생을 잠에서 깨우는 작업을 하기 위해 어떤 상(相)을 취할 수는 있어요. 그런 용도와 쓰임 때문에 선사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든지, 몽둥이로 친다든지 했던 것입니다.

以有如是方便智, 除滅無明. 見本法身, 自然而有不思議業種種之用. 卽與眞如等遍一切處. 又亦無有用相可得.
이유여시대방편지, 제멸무명, 견본법신, 자연이유불사의업종종지용, 즉여진여등편일체처, 우역무유용상가득.

이와 같은 커다란 방편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무명을 제거하고 없애며 본래의 법신(法身)을 보아서 자연히 불가사의한 업(業)의 여러 가지 작용을 갖는 것이니, 곧 진여와 똑같이 모든 곳에 두루하게 되며 또한 그러면서도 얻을만한 작용의 모양도 없다.

방편지(方便智)는 지난번에 말한 대지혜광명(大智慧光明), 즉 모든 것을 두루 비치는 지혜와 같은 의미입니다. 전체를 보는 대지혜광명처럼 대방편의 지혜도 아주 밝게 보기 때문에 어두운 마음을 제거합니다. 무명이 생겨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나와 대상을 나누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체와 대상에 대하여 그토록 주목하여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체와 대상을 알리는 것에 주목하고 있어요.

자연히 다양한 불사의업(不思議業)의 작용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왜 불가사의한 거죠? 본질은 허망한 상(相)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이상하게 본질은 상(相)에 물든 마음을 깨우치고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과 상(相)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본질은 상(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되는데도, 영향을 미쳐서 물든 마음을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또 상(相)에 물든 마음은 본질에 영향을 미쳐서 어두운 무명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요. 정법훈습(淨法熏習)과 염법훈습(染法熏習)이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불가사의하다고 해서 불사의업(不思議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작용이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도 벌써 분류이고 분별입니다. 애초에 분별없는 것에 마음이 금을 그어 놓은 것이 분별이라고 그랬으니까 사실 작용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분별해 놓은 거예요. 분별 자체가 마음의 일이라서 오직 하나만 있을 뿐인데, 마음이 이러 저러한 상(相)과 용(用)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얻을만한 작용의 모양도 없다고 했어요. 이때까지 불가사의한 작용이 있다고 말해놓고 다시 작용의 모양이 없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분별하는 것일 뿐,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何以故. 謂諸佛如來, 唯是法身智相之身. 第一義諦, 無有世諦境界. 離於施作, 但隨衆生見聞得益. 故說爲用.
하이고, 위제불여래, 유시법신지상지신, 제일의제, 무유세제경계, 이어서작, 단수중생견문득익, 고설위용.

왜 그런가? 모든 부처와 여래는 오직 법신(法身), 지상(智相)의 신(身)이며, 제일의제(第一義諦)로서 세제(世諦)의 경계가 없는 것이어서 시작(施作)을 떠난 것이나, 다만 중생의 견문(見聞)에 따라 이익이 되게 하기 때문에 용(用)이라 말하는 것이다.

지상(智相)은 경계육상(境界六相)에서 자세히 설명했었죠.

지상(智相)–상속상(相續相)–집취상(執取相)–계명자상(計名字相)–기업상(起業相)–업계고상(業繫苦相)이 의식이 작용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중에 지상(智相)은 경계를 통해 이것과 저것을 나눠놓고 호오(好惡)를 분별하여 아는 것입니다. 업상(業相)과 나와 대상으로 분열되는 전상(轉相), 대상이 세분화 되는 현상(現相)에 이어 분별된 대상에 좋고 나쁨이 붙는 것이 지상(智相)입니다. 이렇게 좋고 나쁨이 나타나면 뒤를 이어 고락(苦樂)과 집착이 일어나며 번뇌가 생겨나죠. 의식의 세계는 집착의 세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상(智相)부터 번뇌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현상(現相)의 순수한 분별심(分別心)까지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구별하고 탐구하는 데 분별심을 써야 해요. 그러나 그 이후로 진행되면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어린 아이에서 성인(成人)으로 의식이 발달하는 과정은 여러분이 매일 잠에서 깨어날 때 그대로 순식간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뭔가를 의식할 때도 일어나고 있어요. 매 순간 이 과정이 전광석화(電光石火)와 같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종(種)의 발생은 계통의 발생을 반복한다고 하죠. 세포가 분화해서 우리 몸이 되는 과정은, 생물종이 맨 처음 발생해서 지금까지 진화해온 과정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프랙털(fractal) 구조인데, 아기가 태어나서 의식이 발전하고 전개되어 가는 과정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뭔가를 의식할 때도 그대로 전개되어 벌어집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의 안방을 떠올려 봅시다. 자, 지금 이 순간 전상(轉相)이 나타난 것입니다. 마음이 한 번 굴러서(轉識) 안방이라는 ‘대상’과 그 안방을 보고 있는 ‘내가 나눠졌어요. 이제 마음속에 나타난 안방을 잘 들여다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가구들이 있고, 창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보일 것입니다(現識). 이것이 현상(現相)이지요. 자, 보이는 것들 중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구별해보세요(智識). 지금 이 순간 지상(智相)이 나타났습니다. 좋은 것에 가까이 가면 기분 좋고, 낯아서 보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것들을 보면 약간의 쓴 맛이 나옵니까? 바로 그게 고락(苦樂)이 생긴 것입니다. 상속상(相續相)이죠. 좋은 것에 머물고 싶고, 싫은 것은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되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것인데, 이 과정이 매 순간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반복되며 우리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호오(好惡)와 고락(苦樂)으로 인해 아주 미묘하고도 끊임없이 자극을 받고 있어요.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날 때,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 좋은 사람이 떠나갈 때, 돈이 없어 사고 싶은 것을 못 살 때 등등 끊임없이 자극을 받고 있는 마음이 얼마나 괴곤하겠어요? 이런 일들이 지상(智相)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부처와 여래는 오직 법신(法身)과 지상(智相)의 신(身)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중생이 생각하는 것처럼 항구적인 개별체로서의 개인이 아니라, 법(法)의 몸이며 지상(智相)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재하는 개인이 아니라 역할로서의 법신(法身)이고, 의식하기 위해 경계 없음에 금을 그어 분별해 놓은 지상(智相)의 몸이니, 부처와 여래와 범부가 따로 없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개별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여는 다 똑같은 것이고, 앞에서 말한 작용의 모양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분별해 놓은 것입니다.

제일의제(第一義諦)는 진제(眞諦)를 말하고, 세제(世諦)는 속제(俗諦)를 말합니다. 진제는 진리의 정법(淨法)이고, 속제는 세속에서의 도리를 의미합니다. ‘제(諦)’는 어떤 원리나 원칙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정법인 제일의제(第一義諦)와 속제인 세제(世諦)로 나누는 것 자체가 경계지요. 땅의 입장에서 전라도와 경상도라는 경계는 아무 의미가 없듯이, 제일의제(第一義諦)와 세제(世諦)도 경계가 없어 둘이 아닙니다.

시(施)는 베푸는 것이고 작(作)은 지어내는 것인데, 시작(施作)을 떠났다는 말은, 마음이 만들어 베풀고 행위 짓는 것이 따로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시작(施作)은 ‘무위(無爲)의 위(爲)’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는 행위는 유위(有爲)이지요. 내가 베풀고, 내가 도움을 주고, 내가 큰일을 해냈다는 마음이 유위(有爲)의 위(爲)라면, 무위(無爲)의 위(爲)는 일은 하되 일한 자가 없는 것, 춤을 추되 춤추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행위는 있지만 행하는 자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경계 없는 마음이 보는

행위의 핵심입니다. 이때 ‘깨닫지만’ ‘깨닫는 자가 없다’가 되는 것입니다. 무위이화(無爲而化)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그런 것입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할 일이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 무위이화(無爲而化)입니다. 다만 중생의 보고 듣는 것에 따라서 이익이 되게 하기 때문에 용(用)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중생의 마음에는 나와 대상의 분별이 있으니 그런 마음이 들고 보아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용(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용(用)의 의미가 크다는 것이 용대(用大)입니다. 진여의 삼대 속성인 체대(體大), 용대(用大), 상대(相大)를 마쳤습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홀로스 공동체 소식

1. 깨어있기 마스터그룹을 위한 연습과정 실시

지난 2월 9일과 10일 깨어있기 마스터그룹을 위한 연습과정을 처음 실시했습니다. 주의연습을 위주로 심도있게 행하였고, 모두의 피드백을 서로 깊이있게 나누면서 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시에 이 연습들이 왜 이렇게 구성되었는지, 그 이면의 원리와 이치는 무엇인지, 안내하는 마스터로서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나누는 귀중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들을 정리하여 마스터 워크북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2. 깨어있기 마스터 과정 소개

이 과정은 깨어있기 기초, 심화 과정을 마치고 감지가 분명해진 사람으로서 기초, 심화를 4번 복습하고, 깨어있기 워크샵에 도우미로 감지교육을 안내해보기 2회, 관성다루기 1주일과정을 마친 사람에 한하여

소정의 테스트를 거쳐 깨어있기 기초과정을 가르칠 수 있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마스터' 자격을 주는 과정입니다.

마스터 자격이 주어지면 자신의 지역에서 깨어있기™-워크숍 기초과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감지(感知)™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삶이라는 파도의 마스터가 되어 그 어떤 거친 파도라도 즐거이 탈 수 있는 깨어있기의 마스터가 되어보십시오.

특히나 이 그룹은 내적인 깊은 느낌이 다가온 분들과 적극적으로 이 작업을 해보고자 하는 분들이 뜻을 합하여 좀더 깊은 공부와, 일부는 깨어있기를 널리 알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모이기로 한 모임입니다. 1년에 걸쳐 깨어있기 책의 26개 연습을 모두 새롭고 상세하게 할 예정입니다. 즉, 연습 하나당 하루 전체를 할애하여 아주 세밀하고 심도있는 연습과 그 연습의 의도, 이 연습이 이러한 절차와 순서로 진행되는 이유 등을 함께 공부할 것이며, 이 작업이 완료되는 1년이 지날 즈음에는 깨어있기를 진행할 수 있는 마스터들을 위한 워크북으로 탄생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깨어있기 마스터그룹에 대해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2-747-2261)

삶이라는 파도의 마스터가 되어 그 어떤 거친 파도라도 즐거이 탈 수 있는 깨어있기의 마스터가 되어보십시오.

....절대의식은 어디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발로 딛고 서있는 지금 이곳에 이런 저런 일상의 생각이 활개치는 상대의식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늘 음양을 포함하는 태극과 같습니다. 음양이라는 표면의 상대세계가 멈추면 바로 그곳이 태극의 세계인 것입니다. 당신이 괴로워하는 그 번잡한 생각과 감정들이 멈추는 순간 바로 그곳이 절대세계인 것입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들로 채워진 드라마의 세계, '나'와 '대상'이 있고, 이것과 저것이 있는 상대 세계는, 바로 그 순간 절대세계 위에서 벌어지고 있으므로 항상 지금 이곳에 이 둘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파도와 물이 같이 있듯이...(중략)

